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용노동부-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하여 애로사항 및 정책 논의
- 중기중앙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외국인력 활용 확대 등 34건 정책건의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개최한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용노동 정책의 개선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10월 대통령은 민생현장 소통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셨고, 이 일환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김기문 회장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자 등 20명이 참석하여 직접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외국인력 활용 확대 등 건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인들과 현장에서 즉석으로 심도있게 정책을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실, 국장도 참석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은 과거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주역이자 현재 한국 경제의 든든한 근간이며 미래를 위한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다”라고 하며 “오늘 주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는 경청하여 적극 검토 하겠으며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노동 관계법령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홍경의 (044-202-7026)
		담당자	사무관	김은화 (044-202-7028)

붙임1**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요**

□ 일시: '23. 11. 27.(월) 15:00~16:30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 회의실

□ 주요 내용: 중소기업 고용·노동 현안 및 정책과제 공유

□ 참석자:

○ (중소기업)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관련 단체 등 20명

○ (고용노동부) 장관, 기획조정실장,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등 8명

□ 진행순서(안)

시간		주요내용	비고	
15:00-15:03	3'	입장 / 기념촬영		공개
15:03		개회		
15:03-15:05	2'	참석자 소개		
15:05-15:10	5'	인사말씀	중기중앙 회장	
15:10-15:20	10'	모두발언	장관	
15:20~16:25	65'	정책건의 및 답변		비공개
16:25~16:30	5'	마무리 말씀		

※ 현장 및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상황 등에 따라 실제 발언은 다를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함께해주신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회장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들에 감사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중소기업인들이 주시는 생생한 목소리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듣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과거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의 주역이자 현재 한국 경제의 든든한 근간이고 희망이며 미래를 위한 혁신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산업화 초기 우리나라 수출과 고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핵심적 역할을 해주셨는데 미래 혁신과 도전의 주역도 여전히 중소기업입니다.

한 예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자연에서 채굴한 것이 아닌 실험실, 즉 랩에서 자라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인간과 자연 친화적이라는 면에서 MZ세대의 “가치소비”와도 잘 맞고 비용도 적게 투입되어 새로운 산업영역이자 트렌드로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먼저 혁신을 통해 세계 경쟁에 참여한 기업 역시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우리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가 세계를 선도할 혁신 기술과 제품에 대해 “혁신상”을 수여하는데

CES 2023에서는 우리나라 중소·벤처·창업기업 116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여 전체 1/4를 차지했습니다.

CES 2024에서도 수상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이러한 혁신과 성장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생과 협력의 노동시장 구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런 애쓰모글루는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정치와 경제 제도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나 인구 구조적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현 정부의 노동개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해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전지하면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근로자 권리침해에 대한 신속한 감독을 통해 중소기업업체, 병원 등 그간 취약했던 분야에서 근로조건 향상, 약자보호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더해 부당한 단협 및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운영과 회계의 자율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큰 폭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자발적인 협력 모델인
상생협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해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밖의 불공정한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관계법령과 제도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산업안전 분야, 외국인력
분야 등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노동관계법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6천명 이상의 노사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향후 노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때마침 한국노총도 사회적대화에 복귀하였습니다.
노사정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만큼
경영제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상시적으로 겪고 있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취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 세 차례의 종합대책을 통해
업종별, 지역별로 고용 여건을 개선하고
채용에 이르기까지 전 부처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월 빈 일자리 수가
전년동월 대비 1.2만개가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외국인력은 금년
고용허가제 쿼터를 12만명까지 확대하였고 장기근속 특례 신설
등 숙련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중입니다.

오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내년 쿼터를 16만 5천명까지 늘리고
음식점업 등 인력난 심화업종에 대해 관제부처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역량, 담당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하여 훈련상담부터 개발까지 지원하고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통해 비용도 경감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노동시장 약자를 위해 철저한
노동관계법령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같은 부조리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초년생,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사업장 내에 위험요소가 없는지
철저한 위험성평가 실시 등 안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50인 미만 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서는
법이 발의되어있는 만큼 여·야간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시대가 흐르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결국 또다시 트렌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노동의 가치가 아닐까 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는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도 경영의 중요한 철학의 하나로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소설(小雪)을 지나
완연한 겨울의 초입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거처야만
봄에 꽃이 피는 현상인 “춘화현상”처럼
우리 함께 이 추위를 잘 이겨내고
의미 있는 상생의 꽃을 피워내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